

# 東 아 시 아 古 代 學 會

(448-701)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031)8005-3515(研), 011-9751-3998 / sjy0724@yahoo.co.kr(회장)송재용 //  
(031)8005-3019(研), 010-9871-1037 / inse-yoon@hanmail.net(총무이사)윤재환 FAX (031)8021-7186

문서번호 : 2012 - 001

발신일자 : 2012. 1. 18.

수 신 : 회원 제위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11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동아시아고대학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단국대 송재용입니다. 부족한 제가 학회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으로서 학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앞으로 2년간(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학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업무는 2014년 말까지(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입니다. 이후 학술지 평가업무를 대교협에서 맡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맡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등재학회지가 너무 많다고 하여 4분의 3 정도를 퇴출(이미 일부 학회지는 퇴출당했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2014년까지 매년 학술지 평가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우리 학회지의 경우 2012년 1월 3일 등재지로 다시 평가 받았고, 금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계속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받는 학회의 학회지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회들이 규정 보완과 함께 논문심사를 엄격히 할 뿐만 아니라, 근거 서류 및 메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도 서영대 전임 회장과 이복규 전임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이명현 전임 편집이사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엄정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학회지가 등재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회지 개선 및 발전방안도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운영이사들과도 협의할 생각입니다.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현실적으로 들라고 하면 학회지 등재지 유지, 학회 재원 및 회원 확보, 합리적이고 원활한 학회 운영 및 관리 등 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회장 및 운영이사들과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고문, 평의원, 전임 회장들과 전임 임원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 봉사로 1999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중국·일본·몽골의 문학·역사·철학·민속·종교·어학 등

다양한 학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학회보다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회입니다. 그러나 강점이 많은 반면에 약점(특히 학술발표 주제나 논문의 연계 또는 심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중장기 기획주제 수립 및 보완책 등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 및 회원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 시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 운영과 관리도 분담 책임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의 임기 2년간 **Key-Word**는 ‘**화합 · 조화 · 소통 · 변화**’입니다. 저는 전임 회장님들이 해 오신 일들을 이어받고,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학회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 2년간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포용 · 화합 · 소통하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학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도 노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학회는 퇴보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회를 위해 총대를 멜 것이며,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학회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희생이며 봉사입니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학회를 개선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야 학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후일 받겠습니다. 그런바 학회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학회 회칙 일부(회장 선출과 부회장 인원 조정 등)와 규정(편집, 윤리규정 등), 내규(고문, 평의원, 명예회장 추대 및 연구위원회, 섭외정보위원회 신설과 보완 및 정리 등), 시스템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임 회장들과 집행부가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데 가급적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변화 시킨다고 했지만, 급진적 변화는 아닙니다. 어쩌면 온건한 또는 점진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나 성격상 혁신적이지 못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연구위원회, 섭외정보위원회를 신설(위원장 : 부회장, 위원 : 운영이사와 일반이사)하여 부회장들이 책임지고 학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종전처럼 운영이사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인 저는 총괄만 하겠습니다. 덧붙여 임원진도 이사는 40대 중심, 편집위원은 50대 중심으로 임명하여 조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임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서로 협조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담당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원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 또한 다른 학회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건실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학회비(3만원)납부【국민은행(동아시아고대학회):834-01-0059-945】** 와 함께 **회원 가입**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개선사항이나 재원확보방안(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연구비, 이외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연구비,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 등 학회 발전을 위해 건의할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및 운영이사들과 검토 · 협의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지에 수록된 **주소와 메일주소, 전화번호가 틀린 회원**들이 있습니다. 학회지를 보시고 이상이 있는 회원은 윤재환 총무이사에게 메일이나 전화,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면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술발표**(봄 · 가을-개인별 주제, 여름 · 겨울-기획주제와 개

인별 주제. 이명현 연구기획이사에게 문의·신청)와 **학회지 투고**(매년 3회<3월20일, 8월 20일, 12월 20일> 간행. 허원기 편집이사에게 문의·투고)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임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 드리면서, 학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2년간 열성적으로 봉사해주신 전임 서영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2년만 회장으로서 학회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건강과 건필, 만사형통과 만복장락을 기원합니다.

※첨부 : 제7대(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임원 명단

2012년 1월 18일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송재용

